

## 언론의 반기독교광고 게재 중단 촉구

### 광고 수입에 눈이 멀어 반기독교 언론이 되나 반기독교, 반종교, 반사회적 집단의 홍보라니

지난 2년 전부터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들이 기독교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의 반기독교 광고를 버젓이 매주간마다 내고 있고 반기독교 활동을 부추기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지난 3개월간 내 광고의 일부를 살펴보자.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 (동아일보 2024년 6월 27일) '성자 예수라는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아일보 2024년 6월 20일) '영원히 멀접당한 예수' (동아일보 2024년 6월 19일) '악인 예수에서 선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동아일보 2024년 6월 7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친 치명적인 악한 병' (동아일보, 중앙일보 2024년 5월 30일) '사망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미 죽은 자 이천년이 다 된 예수는 어떠하겠는가' (동아일보 2024년 5월 29일)

'작자, 주의 징계가 없는 사생자인 예수' (동아일보 2024년 5월 17일) '사망하여 소멸한 자 예수' (2024년 5월 10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와 예수를 섬기는 귀신의 천자' (동아일보 2024년 5월 3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증거' (동아일보 2024년 4월 19일) '인생 예수의 모든 증거는 허사다' (동아일보 2024년 4월 12일) '동처럼 망한 예수' (동아일보 2024년 4월 5일)

이처럼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이 동아일보는 지난 해부터 과천 은혜로교회(현재는 해빛교회-신옥주의

주장을 받아 버젓이 광고로 1주일 단위로 자기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이 약 25억 명에 이른다. 그런데 유독 동아일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펼쳐하는 이단 종파의 광고를 수년간,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어주는 것은 이단 종파의 대변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모니터링한 것을, 지난 4월 1일 동아일보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단 광고 중지의 건"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런 기독교계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 6월 27일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신 나간 행위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반기독교이며, 이단이다. 심지어 예타한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지독한 이단 집단의 반기독(反基督教) 광고를 실어주는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언론에서 광고는 직접적으로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전한 종교를 부정하고, 더군다나 교주적인 사람이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복역 중인 그들의 터무니없는 종교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이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하여도, 광고란에는 세계인 수십 억명이 믿는 종

교를 부정하는 반기독교, 반종교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보도' 일 것이다. 세계 인구의 1/3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고유 종교가 가진 교리와 진리를 펼쳐하는 과정이다.

더군다나 광고의 주체인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강금, 사기 등으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신옥주 집단은 종교를 가장하여 신격화, 범죄 행위를 일으킨 집단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가 이런 자들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수년간 게재한다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마땅한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다.

동아일보가 신속히 이단 집단의 저속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그동안 기독교계에 정신적, 영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아일보를 반기독교, 반종교, 반사회적인 나쁜 언론으로 규정하여, 계속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단 집단의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품위와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

### 교단 제73차 총회 제2회 임원회

## 북 경거망동 '안보강화', 감염병 확산주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 73-1차 실행위, 목사고시 일정 등 점검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6월 25일(화) 오전 11시 갈릴리큰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장동근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33:29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에는 소유가 행복이라고 칙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기준은 죄의 문제를 해결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으며 구원받은 것"이라고 전하고 이를 선포하는 모두가 되어 행복자로 살 아가기를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김기진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제73차 총회장 김영준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은혜가운데 드려졌음을 보고하고 타구선교회 모임, 제73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의가 열려 2025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수립했음을 보고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마감은 24년 8월 30일(금) 17시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25년 2월 3일(월), 4일(화) 치러짐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선교사가입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은퇴 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7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개최됨과 2024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가 오는 7월 28일(주일) 오후부

터 30일(화)까지 2박 3일간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5.6학년 등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대립밸리교회 평창 수양관에서 교육국(국장 조선남 목사) 주관으로 개최되며 산하 교회에 알려서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장회(APAGF)가 7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마닐라에서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아태지역 하나님의 성회 선교비전을 위해 선교전략을 논의한다.

임원들은 감염병 종료 선언 후에도 예기치 못한 말라리아를 비롯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적령기 결혼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 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왜곡으로 영혼을 수령으로 빼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16)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성도들을 가리켜 목자와 양들로 비유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 우리에 문은 성경에 계시된 구속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가리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이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갑니다. 성경과 다른 소리를 내는 자를 결코 따르지 않고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밖에는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구세주로 행세한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절도이며 강도로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문 밖에서 기우거리거나 관찰하다가 물러가 버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직면하는 상황이 어떠하든 모두 다 유익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십니다.

10절에 기록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도적은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훼집하게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주십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산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라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이라가 양을 늑들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쌍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산꾼은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신자들에게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주의, 종교합주의의 실체를 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16절에는 "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란 아직도 예수께로 나오자니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허우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힘써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와서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

### 충북지방회 보은순복음교회 현당예배



인도로 시작하여 현당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 지방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기도, 교단 전임 총회장이며 청주중 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의 설교 후 지방회 전임 회장 김윤용 목사의 현금기도로 이어졌다.

김상용 목사는 '승리하는 교회' (마 16:13~20)라는 제 목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훌륭하게 교회를 성장시켜 건축하고 현당하므로 승리한 보은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했다.

2부 축하 및 기념행사는 지방회 총무인 오병용 목사의 인도 하에 보은순복음교회 이광은 원로장로의 건축 경과 보고, 전예돈 장로의 현당 열쇠전달, 윤경현 담임목사의 교회 현건사 및 감사패 수여,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당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풍성한 만찬을 나누며 모두 기쁨을 함께했다.



# 6.25 74주년 평화통일기도회

한교연, '리멤버 투게더' 등 사전행사도 진행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6월 20일(목) 6.25 74주년을 맞아 북한 땅이 바리다 보이는 강화도와 교동도 일원에서 평화통일 기도회 및 리멤버 투게더(6.25 참전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 기족 위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교연 임원과 회원교단 총무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6.25 74주년 평화통일기도회는 강화도 평화통일전망대와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등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교동도 화개정원 전망대와 대릉시장 등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 광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6.25 전쟁이 발



발한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흔이 우리나라 곳곳, 국민 가슴속에서 남아있다"며 "대한민국은 74년 전의 혼란으로 물고 가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며 막아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교연 임원들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세워진 강화도 제적봉 평화통일 전망대에서 약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 건너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와 멀리 개성, 송악산 등을 바라보며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

## 복음신문 지령 3,000호 발간은 '하나님의 은혜'

이철 감독회장, 김순권 성서공회 전 이사장 등 참석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간지 복음신문(회장 이철 감독, 사장 나서영 목사, 설립자 고 나운동 목사)이 지령 3,000호를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정화와 발전을 위해 올곧은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김상우로 소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기념예배에는 교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복음신문의 3,000호 발간을 축하했다. 한국교회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신문인

만큼 이날 참석자들 역시 연륜이 눈에 띠는 중진들이 주를 이뤘다.

예배는 김용국 목사(호프월드미션 대표)의 사회로 김하신 목사(통합파이선 종회장)의 기도, 이종남 목사(합동중앙 종회장)의 성경봉독, 이상완 목사(파이선종회신학 교학처장)의 특송, 복음신문 회장 이철 목사(기감 김독회장)가 설교를 전했다.

이철 목사는 룸 3:21-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익'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신문은 이 땅에 참 어려운 때 자기 역할을 다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 복음신문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 현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율러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히 쓰는 복음신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축복했다.

교계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다. 김순권 목사(대한성서공회 전 이사장), 박영호 목사(보수교단협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한국미술인선교회 회장), 유덕식 목사(대신 증경총회장), 김국경 목사(합동선목 종회장) 등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복음신문 발행인 겸 사장인 나서영 목사는 "지난 64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3만호가 나올 때까지 문서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복음신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3000호 기념예배는 YK그룹 종재 양창부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 벤엘쉼터교회, 원로·담임 취임예배

김원식 원로목사, 이태종 담임목사 추대

벤엘쉼터교회 이전 및 김원식 원로목사, 이태종 담임목사 추대 감사예배가 지난 6월 16일(주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동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벤엘쉼터교회 도기현 목

사 사회로 오수철 장로의 대표기도, 피어선총회 부총회장 염달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염달원 목사는 출 17:8~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여호와 낫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태종 담임목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란다."라며, "바리웁기는 벤엘교회가 김원식 원로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빛 위에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는 원로목사 추대와 담임목사 취임예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인노회장 김병선 목사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를 등단케 한 뒤 추대 및 취임 기도를 한 후 취임서약을 받은 후 김원식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됨을, 이태종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공포했다. 3부 권면과 축하시간에는 부총회장 염달원 목사와 신학원장 김병선 목사가 성전이전과 원로목사 추대, 담임 취임에 대해 축복했다.



## 성서공회, 르완다에 성경 기증

개포동교회의 후원으로 5,00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가 개포동교회(이풍인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아르완다에 성경' 5,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는 "성경을 통해 르완다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후원해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수많은 르완다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개포동교회가 함께해 주셔서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본 공회 호재민 총무는 "개포동교회가 후원하는 성경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필요로 하는

르완다 사회를 치유하고 또 르완다 교회를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귀한 백침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이지만 종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둠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르완다는

국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학살 이후 큰 혼란과 상처가 남아있는 르완다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서를 통한 평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전해지는 〈킨아르완다에 성경〉 5,000부는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살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인생의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한기총, 임원회·실행위 개최

3개 교단 신규회원 가입 승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18일(화) 오전 제35-3차 임원회와 제35-1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신규회원장 안이영 목사가 실사보고를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총회장 안병재 목사, 337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글로벌)(총회장 박승식 목사, 208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서울)(총회장 김영신 목사, 223개 교회) 이상 3개 교단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다.

정관 수정 및 개정의 건(문체부 요청 사항)은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정관 제19조 1항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기로 했다.

임원회 부의 안건으로 예장 합동총회 회원권에 대하여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



대책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기로 했다.

를 보고받고 가결했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임시총회 주인의 건을 일정 조정이 필요해 기존 6월 4일에서 6월 27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주인했다.

임원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현수 목사의 기도,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주 안에 있는 자의 복(요 15:16)'이란 제목의 설교, 심하보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 제74주년 6.25전쟁 상기 연합예배

(사)한국개신교단협 (사)한국개혁교단협 (사)세계개혁교회연



(사)한국개신교교단 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 (사)한국기독교 개혁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 및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와 공동 주최로 가입교단 임원 및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1일(금)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 내 루이시기념관에서 제74주년 6.25전쟁 상기 연합예배를 드렸다.

연합예배는 양정섭 목사의 사회, 이승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의 대표기도, 개혁종중단의 '십자가의 전 달자' 특송, 박형렬 목사의 설교 '구속 연약의 애국 정체성(히 7:16-25)' 순으로 이어졌다.



박형렬 목사는 "74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나 지금도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인 6.25전쟁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전쟁 억제를 위해 더욱 더 선구자들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개혁 신앙을 본받고, 애국 정체성을 민족의 가슴에 새겨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가지 중점 사항 첫째,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둘째, 애국신앙은 절저한 개혁신앙이라는 것 셋째, 애국 정체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다.

말씀에 이어 특별기도로 박기원 목사(동아시아선교회 대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3개단체와 회원을 위하여 허용준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총회 총무)가 기도하고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세기총, 6.25전쟁 74주년 메시지 발표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 기억 해야 할 전쟁"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7일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 기억 해야 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발표했다.

세기총은 "올해로 6·25전쟁(한국전쟁)이 벌써 한 지 74주년이 되었다.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폭풍 작전' 이란 계획에 따라 삼팔선 전

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단락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면취진 전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74년이 지난 이제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호국의 영웅들도 소수만 남았고 당시 참혹한 현실을 아린 나이에 겪었던 세대들마저도 팔순의 나이에 접어들어 100년 후가 되면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말 밟아야 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말 밟아야 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이 실현되고 이에 따른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또 "세기총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로 6.25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처럼 기도회를 진행해 왔다. 지난 회기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호국의 영웅들을 찾아 그분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뜻을 기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성연, 제15회 정기총회 개최

회칙개정 통해 이단 대책분과 신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윤문기 목사/이하 한성연)는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1시, 나성 안중교회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문기 목사(나성 감독)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노성배 장로(기성 부총회장)의 기도, 이천 장로(예성 부총회장)의 성경봉독, 김만수 목사(예성 총회장)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벧전 1:16)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류승동 목사(기성 총회장)의 축사 후에는 나성(이용주 목사), 기성(문창국 목사), 예성(권순달 목사) 세 교단 총무들이 내빈소개를 했다.

류승동 목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정기총회에서는 조상을 목사(나성)의 기도 후 양종원 목사(기성 서기)의 회원점명, 문창국 목사(기



성총무)의 경과보고, 새 대표회장 윤문기 목사(나성 감독)의 취임사와 공로패 증정, 안건토의, 흥사진 목사(예성 부총회장)의 폐회 및 오찬기도, 분과모임 순으로 순서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칙 개정안으로는 제4조(조직) 2항에 이단대책분과(6명)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위원은 각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중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제6조 제정은 기성 2,300만원, 예성 1,200만원, 나성 700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성연은 지난 회기에 임원수련회, 목회자체육대회,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2023년 대림절 묵상집 발간, 부흥분과 임원수련회, 신년하례회, 제3차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완공 감사예배를 연합 행사로 실시한 바 있다.

## 생명의 말씀



김 바 을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 회장  
• 진리교회

##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 행 12:25~13:12 -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악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본문에는 그들이 연이어 두 번의 금식을 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초대 안디옥교회 시역자들은 금식을 밥먹듯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들이 행한 두번의 금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첫번째 “금식하다”

는 현재시제 능동태이고, 두번째 “금식하다”는 아오리스트시제(70인역 참조. 생각지 않은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순간적용법)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첫번째 금식은 습관적으로 한 금식이고, 두번째 금식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금식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악수하여 보내니라”에 나오는 4개의 동사 “금식하다” “기도하다” “악수하다” “보내다”가 모두 아오리스트시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교회가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올법주의 신앙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 역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옛습관이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점진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된 것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성경말씀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플레스테이스)”는 아오리스트시제 수동태이고, “주목하여(아테나스)”는 아오리스트시제 능동태이고, “말하였다(아이폰)”는 아오리스트시제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엘루마’를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것은 성령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며, 바울은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려는 것은 미술사 엘루마와 사도바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미술사 엘루마는 미술을 통해 총독 서기오를 속이고 그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그 말씀(호로고스)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그 능력과 표적으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도바울이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적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호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사역을 행하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를 빙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연하는 모세가

애굽의 미술사들과 맞섰을 때에 애굽의 미술사들이 지팡이를 밴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행했는데, 이 때 모세가 지팡이를 그 밴들을 향해 던졌는데도 지팡이가 밴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미술사 엘루마를 향해 바울이 “네가 소경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소경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이며, 미술을 행하는 애굽의 미술사나 바보섬의 엘루마와 달리 없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호로고스)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며, 그 말씀(호로고스)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롱^^

오늘날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동정

## 한장총 중독예방 세미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환 목사, 이하 한장총) 다음 세대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목)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청소년 중독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다음세대위원회 강동규 목사 사회로 위원회 서기 김재선 장로의 기도, 대표회장 전환 목사가 ‘목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13)’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축도했다.

## 배영만 목사 임직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피어선)총회(총회장 우선화 목사)는 지난 6월 19일(수)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동파로 소재 사랑교회(담임 홍성근 목사)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배영만 강도사의 목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전 광택대학교 총장 김문기 목사가 행 1:7-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 생명의전화, 임혜숙 이사장 취임



생명의전화 제10대 이사장 임혜숙 장로 취임식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목) 서울 은평구 진관감리교회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그동안 생명사랑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강용규 목사에 이어, 임혜숙 장로가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임혜숙 이사장은 한국교여연합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교여연합회 일치에 협력해 왔다.

## 칼빈대 다문화희망협업 업무협약



칼빈대학교(총장 홍건영)는 지난 6월 18일(화) 칼빈대 접견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희망협회(대표 장윤제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유학생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과 복음화 사역 국대회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칼빈대 홍건영 총장, 총괄본부장 김태성 교수, 신대원장 김덕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5월 31일, 소위 ‘방송3법개정안’이 입법 밤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날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찬동하여 올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다.

이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밤이 되고 통과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대거 올린 것이다. 입법 밤의 이유로는 ‘공적 책임을 위해서 각 방송

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방송사의 이사들을 현재 9~11명인 것을 자기편이 되는 인사들로 각각 21명으로 늘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대폭적으로 주자는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져, 사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말로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 학제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 장악’이라는 암자 같은 디테일을 숨겨놓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서두르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8월이면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방문진 이사 구성은 대략 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므로, 이번에 여당 둘의 이사진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탄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송위의 전

반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MBC 사장의 교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라는 징벌적 조항을 넣고 있다. 물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언론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밤이 되었을 때에도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은 같은 편으로 여겼

던 언론에 강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일까? 한 마디로 비리 정치인을 언론 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 노조 등 막강한 권력들이 이 야당과 맥을 같이 해 왔는데, 그마저도 언론의 비판과 보도 기능에 더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이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소위 ‘방송3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권력 유지와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할 원한다. 그것이 언론인데, 압법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이다.

아무리 정치 권리가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파놓은 험정에 자신들이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슬퍼렇게 보여도, 결국 국민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202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내 중소형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 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고문

대회장

주요 강사

청년국장

대회본부장

선교국장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김영준 목사  
교단 총회장  
갈릴리로크소망교회 담임

김영준 목사  
교단 총회장  
갈릴리로크소망교회 담임

김건수 목사  
교단 부총회장  
인천지방회 전임 회장

김진워 목사  
교단 총무  
평창군 청년국장

오세준 목사  
교단 전임 회계  
대림밸리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교단 전임 회계  
대림밸리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교단 전임 서기  
순복음침증은교회 담임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각 지방회, 대림밸리교회 교육부

- 기간 : 2024년 7월 28일(주일) ~ 7월 30일(화) 2박3일간
- 주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Second Blessing!)(행 19:2)
- 장소 : 대림밸리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마자길 21-4)
- 대상 : 각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5,6학년
- 등록접수 : 2024년 7월 28일(주일) 17시부터
- 회비 : 청년, 중고등부 1인 7만원, 초등부 1인 4만원  
\*계좌번호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 문의 : 1) 대림밸리교회 조선남 목사(010-5119-0164)  
2) 포천아멘교회 임형순 목사(010-8262-4722)

##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위해 뜨겁게 기도

###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우 목사)는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1시 부여순복음교회(임임석춘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순구 목사(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김진애 목사(주계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박안나 목사(화평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오승우 목사(천안서복교회)의 고전 15:31을 본문으로 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를 위해, 교회부흥을 위해, 목회자 가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헌금기도, 류승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원들은 점심식사와 차를 함께 나누며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진주순복음교회에서 제73차 월례회 개최

###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성규 목사)는 지난 6월 27일(목) 오전 11시 진주순복음교회(이나견 목사 시무)에서 제73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법근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 총무 이나견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신동임 목사(산돌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이나견 목사의 특송 후 지방회장 김성규 목사의 창 3: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요 3:16),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골 2:28-29)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입술로 시인한 목숨을 내기는 시인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고에스더 목사(순복음 예빛교회)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김진원 목사(예수이룸교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신동임 부회장의 광고와 전임회장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의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총무 이나견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섬김으로 오찬을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의장 김성규 목사 주재로 열린 2부 월례회는 이창모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서기 목

회는 이창모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서기 목

## 진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짐

### 강원지방회 월례회

강원지방회(회장 권용덕 목사)는 지난 6월 27일(목) 철원순복음교회(임임 권용덕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국가의 안보와 은혜와 진리의 말씀전파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권 목사는 앱 6:10-16 말씀을 본문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

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진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성과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교회부흥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권 목사는 이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공산주의 등을 막아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천년초의 효능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3 플라보노이드

- 4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5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6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7 뇌혈관에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8 턱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나 턱을 붙여도 턱월)

(전북대연구논문)

- 9 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10 사포닌 : 면역력 증가

- 11 칼슘 : 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 12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13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14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70인 천년초식품

###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제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짙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짙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년 부흥사회

## 2024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김견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홈페이지: www.ucts.org](http://www.ucts.org)

<http://gd.ucts.org>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상기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훌륭한 목회자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정: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전)예하성총회장

**상임대표회장**

박귀환 목사  
총기연총회장

**교회 단체장**

김소운 목사  
전)기감감독

신상우 목사  
전)나성감독

박노식 목사  
충남경찰청경목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  
전)개혁총회장

이승수 목사  
전)총기연총회장

김수홍 목사  
아산경목실장

김병완 목사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홍석웅 목사  
전)아기연대표회장

**자문위원**

김태호 도지사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구 아산시장  
국민의힘

이영도 아산경찰서장

박서우 교육장

**실무회장**

이정팔 목사  
성시화운동본부장

**사무총장**

임정대 목사  
전)아기연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정연창 목사, 김상웅 목사, 신언석 목사, 임기석 목사, 최규명 목사, 도승현 목사, 강영구 목사, 임은석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박덕수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제74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

## 분단된 조국 복음통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빛과 소금 사명… 밝고 정의로운 사회실현 최선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6.25 74주년을 맞아 제74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를 갖고 국가의 위기상황에 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라져간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예장총회 총회장 김하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참석자들 모두가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6.25를 상기하면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대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 예장총연 법인이사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합동보수총회 이강수 목사의 특별연주, 예장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전 한기총 대표회장 양신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광용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말씀이 전해지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서부터 한국교회에 기도가 그쳤다. 성령의 은혜는 점점 약해져서 기도원이 무너지고 말았고, 새벽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어 “우리 예장총연은 오직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성령운동, 개혁운동에 힘써왔다. 매년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양신현 목사는 행 1:6-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권한’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에 힘쓰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강조한 뒤 항상 이를 위해 헌신해 온 예장총연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저출산 해결 및 사회 도덕, 윤리 회복을 위해’, ‘WCC와 종교대주주의 및 이단폐망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증만을 위해’, ‘(사)예장총연과 본 대회 국가기도회를 위해 주영일 목사 예장합동연합총회장, 지광식 목사(사)예장총연 법인이사, 이종태 목사(예장선교총회 총회장), 김병선 목사(사)예장총연 법인이사, 홍경기 목사(예장고신연합 총회장), 오선미 목사(사)예장총연 상임회장과 하석수 목사(사)한부연 법인이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강준오 목사(사)한국기독언론협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사)예장총연법인이사 김순종 목사의 헌금기도 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하여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가 이어졌다.

예장총연은 지난 6.25 제74주년 국가기도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국통일과 복음전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혔다.

예장총연은 “하나님의 찬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조국과 영토를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분단된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부정부폐, 저출산, 이혼 및 자살률 증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물질만족주의, 도덕과 문화의 퇴폐 등을 방지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회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밝고 정의롭고 희망찬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6.25전쟁 74주년 논평

## 6.25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아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우리는 6.25 전쟁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전쟁에서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외부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리를 지키겠다는 호국의 각오를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6.25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 시카고대 국제관계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1943-)의 수정주의의 사관을 배격하고 북한의 침략전쟁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결의를 다져야 하겠다. 최근 미·중·일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신생전 기류가 다시금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뜻밖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가속화 시켰고 동시에 북한의 해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점차 무력화되어가는 틈을 타 북한은 해무기를 고도화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밀착하면서 생겨난 냉전 기류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정 위협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따른 대북정책의 결과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 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풀어야 하면서 북한과의 극한 대결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깊이 숙고해야 할 시기이다. 살롬나비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장을 밝힌다.

### 1. “한국전쟁”보다는 “6.25전쟁”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6.25전쟁의 이름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6.25전쟁 이란 명칭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시지에 따른 북한군의 남침을 계기로 시작된 침략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 대해 외국에서는 “Korean War”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한국전쟁”으로 번역한다. 외국인들은 전쟁이 일어난 날짜보다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을 통해 전쟁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의 침략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6.25전쟁이란 명칭을 버리고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난 지역을 가리키는 한국 전쟁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전쟁의 침략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전쟁에 대한 인식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Korean War라고 부를지라도 국내에서는 6.25전쟁이란 명칭으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하겠다.

### 2. 6.25전쟁에 대한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극복해야 한다.

브루스 커밍스는 1981년과 1990년에 걸쳐 한국 전쟁의 기원에 대해 2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그의 책에서 한국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 여러 세력의 갈등이 낳은 내전(內戰)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6.25 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전쟁 발발 이유를 두고 토지개혁, 친일파 문제나 38선 분쟁 같은 한국 내부 모순과 갈등 심화에 따른 내전 성격의 전쟁이라는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쟁 없는 장기간의 평화를 구가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다.

### 4. 휴전 이후의 남북 체제 경쟁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하여 장마당 경제가 되었다.

6.25전쟁이 끝나 정전 체제가 형성된 후에 북한은 남한보다 더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제자유무역에 참여하면서 경제 개발을 추진한 결과로 1974년에 국민 1인당 GDP에서 북한을 추월하였고 그 이후 양국의 경제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6.25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집요한 남침 요청을 스텔린이 허락하고 막아찌듯이 후원하는 가운데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련의 비밀문서들이 알려졌다. 이러한 비밀문서들의 연구를 통해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의 이론이 그의 사관에 따른 6.25전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6.25전쟁이 소련과 중국의 후원 아래 김일성이 한반도 공산 통일의 목표를 가지고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는 그 기원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겠다.

### 3. 우리는 6.25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하겠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유엔은

이 유엔이 승인한 합법정부임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침략을 무력 공격에 의한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였고, 6월 27일 안보리 결의 83호를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종합시장은 전국적으로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에는 406개로 2배로 증가했으며, 길거리에 형성된 장마당까지 합하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더 많아졌다. 장마당 세대는 2022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약 50%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마당 세대에게는 남한의 문화가

유입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 탈북했다고 증언하고

북한당국이 이러한 남한 문화 유통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5. 미·중·일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생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미·중·일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생

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까지 세계화

덕분에 전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간

의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발전을 누려왔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70%를 넘어서고 시

진핑이 등장하여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회를 꿈꾸기 시작하자 미국

은 철저하게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미·중

패권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

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중심 국제 질서에 동참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나토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서 신생전 구도가 형성되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색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는 이미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限

## 휴대용 호산나 반주기 출시

휴대폰 크기로 어디든 간편히 사용

새 하늘미디어(대표 이창엽)가 전자출판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휴대용 호산나 반주기를 최근 출시했다.

3년여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된 이 반주기는 기존에 나온 제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기존이 출시된 제품의 경우 두께와 부피로 인해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반주기는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으로 제작되어 있어 교회(대형·중·소형 교회)는 물론 가정예배·구역예배·야외예배 등 모든 예배의식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PPT 창, 파워포인트 창, 개별 개정 구역, 한글 성경 구약, NIA 구약 등이 내장되어 TV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가격도 평균적으로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그리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오늘 7월 중순부터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휴대용 호산나 반주기를 출시한 이창엽 대표는 기독교 문서선교 기관인 기독교 해외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해 수많은 영문판 기독교 서적을 보급했



휴대폰크기의 휴대용호산나반주기

다. 그 후 로고스 출판사로 개명된 이 창업자인 성경연구 올리지 리즈, 주제별 성경 대전을 출간하는 등 한국기독교 문서선교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출판을 시작한 이래 이번에 어디에서나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명품 휴대용 호산나 반주기를 출시했다.

하늘유동을 통해 전국 서점에서 7월부터 구입할 수 있다. 연락처 : 010-4201-7709



TV 연결이 간편하게 되어 있다.

변 국가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와 안보에 해가 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7.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지키려는 결단을 하자.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속하면서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방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와 교류하는 가운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경제발전에 힘입어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지키겠다는 확실한 안보관을 확립해야 하겠다. 우리 사회 안에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주사파를 추종하는 세력이 엄중하고 있다. 우리는 6.25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밀착하고 협력할 때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가치 안보를 추구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 평화유지에 필요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도입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였다. 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션 스쿨을 세우고 복음과 함께 서구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사상을 습득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이승만은 1948년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6.25전쟁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기도하였고, 반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앞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인민민주주의의 위협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겠다. 그의 고난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건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공헌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2024년 6월 24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

성결대학교-안양시기독교연합회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는 지난 6월 18일(화) 성결대학교 재림관 8층 총장실에서 안양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신호 목사)와 기독교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지역 교회와 기관,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 인성을 함양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에 양기 관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안양시기독교연합회는 협약과 함께 성결대학교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증했다.

안양시의 약 600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월 김신호 목사(안양 벤엘교회)가 제5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안양시기독교연합회 김신호 대표회장과 박병열 상임회장, 염규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만성신부전 환자위한 음악회 개최

장기기증, 제주 서귀포시 '라파의 집'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가 지난 6월 12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휴양시설 '라파의 집'에서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선물'을 진행했다.

음악회 '선물'은 생존 시 신장기증인들에게는 '자긍심', 생명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선물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본부를 통해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생존 시 신장기증을 실천한 기증인들과, 아름다운 선율로 생명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알리는 음악인들의 모임인 '애플뮤지'가 함께 준비하여 더

욱 뜻을 같이했다. 많은 이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이번 음악회에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보호자, 기증인, 지역주민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소망하는 5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해 응원의 목소리를 더했다.

공연에 앞서 편지를 낭독한 이용 환자 김연희 씨는 "투병 생활로 고통받던 일상에서 벗어나, 라파의 집에서 꿈같은 휴식을 누리며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저와 같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과 함께 저 또한 생명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진심을 전했다.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반만년

반만년 역사의 강  
도도한 흐름이여라.  
지난 세월  
아픔의 노래  
있어  
우리 모두  
가슴으로 울었다.

아, 주님이시여  
아름다운 우리 강산  
8천만을 기억하소서.  
빛나는 일  
백두산 천지못에서  
한라산 배록담까지  
발길 닦는 곳마다  
주의 숨결 넘치소서.

에스더의 구국단장  
죽으면 죽으리라  
애국의 결사각오  
예레미야의 넘쳐흐르는 눈물  
그대가 느낄 때  
나의 타오르는 눈물  
곧 시내가 그대를 맞아주고  
강을 만나 바다를 이루었네.

아, 대한민국이여  
나의 눈물  
홍수가 되리 아 한강의 기적이여  
그곳에 나의 영혼이 고향을 두었네.

이번 필리핀집회 때  
625 기간이었다.  
UN평화군 16개국 파견—그중에  
필리핀도 함께 협력하였다.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세트 대표 박영수 총재 중심으로

초청받아 지선협 대표총재  
강영준, 임찬양 대표총재 등  
14분이 필리핀선교에 임했다.

세계선교 소장  
윤상호 선교사는  
최전방 바닷가 균처  
신페르난도에서  
사역 18년 만에  
이번에 교회를 지었고  
두 교도소에  
교회를 세워 사형수를 목사로  
만드는 등 감동어린  
사역을 통해  
큰 영광을 돌리었다.

어린아이들도  
100여 명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2, 3백 명 등  
외판 바닷가지역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앙이 넘 순수하고  
예쁜 청소년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감동이 넘쳤다.

낮에는 현지 목회자  
150여 명 전도훈련 세미나로?  
저녁에는 청소년 1천여 명을  
체육관 집회로 끄거운 찬양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축제의  
시간이었다. 교도소사역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죄수들  
한사람씩 암수기도를 통하여  
영접기도를 통해 눈물로 회심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이었다.

- 이후 교수



## “하남성 정주중학 내 정주국제학교 세계적 관심”

기독교정신으로 출발, 신앙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명문 사학 중국 하남성 내 정주에 위치한 정주중학은 중국은 물론 세계를 꿈꾸는 다른 나라 유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지난 1997년 개교한 공립학교로서 25년의 역사를 갖춘 정주중학은 약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기숙학교다.

캠퍼스 풍경은 빨간 벽돌과 대리석으로 꾸며진 유럽의 왕족 학교를 연상케 하며, 일반적인 대학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으리으리한 규모와 다양한 시설물은 정주중학의 사회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증명한다.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걸려 있고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과 도서관, 실습실, 연습실 등이 도처에 깔렸다.

또한 푸른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은 매일 10시까지 불을 끄지 않아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실내 농구장, 도서관, 음악실, 무용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 역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기숙사는 2인 1실 혹은 4인 1실로 구성되어 아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끈다. 선배들이 후배를 돌보고 이끌며, 타국에서의 끈끈한 애정을 키우는 것은 정주국제학교만이 갖는 장점이다.

정주국제학교는 지난 15년간 총 2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 중 북경대 15명, 칭화대 24명, 복단대 71명, 인민대 85명이 합격했다. 올해 2024년 세계



대학순위(times higher education 기준)에서 칭화대 12위, 북경대 14위, 복단대 44위를 각각 기록하며, 세계 10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서울대는 62위를 차지했다. 학교측은 중국 대학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많은 명문대에 진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주국제학교가 이렇게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어다. 중국 내 학교인 만큼 중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체득한다. 여기에 PGA 캐임브릿지, A-Level, SAT 수업, IELTS 영어수업, HSK 수업 등을 통해 상당수가 영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게 된다.



물론 학생들 간의 개별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신입생을 위한 중국어 입문 과정, 중국학생들과의 학반 등을 통해,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학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학교측은 자신한다.

세계 G2 국가들의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점차 치열해지는 미래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출발한 정주국제학교는 이사장을 비롯 모든 교수진 운영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체플과 기도시간을 배정하여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돋는다.

한편, 정주국제학교는 신입생(전학년)을 상시 모집한다. 본 학교는 중고등학교(총6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다.

등록금은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 1,800만 원 수준이며, 여러 장학금 특혜를 감안하면 실제 1,500만 원 정도다.

이는 국내 대안학교 및 타국 국제학교의 일반적인 등록금의 50~70% 수준이다. 특히 정주국제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입학하는 중국 4대 명문대학은 연 등록금이 50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5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5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 류 접 수: ① 일시: 2024.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서 류 심 사: ① 일시: 2024. 9. 5(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4. 9. 30(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 목사고시료: ① 납부일: 2024. 8. 23(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목사 고 시: ① 일시: 2025. 2. 3(월)~4(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영준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총회장 목사 김영준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실패의 삶에 희망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감사하게 됩니다. 패럴을 립피 매달리스트 초청감사예배(2008.12.14 세종문화회관) 때 신보미 선수(뇌성 마비/경기종목=보치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박세호 선수(뇌성마비/경기종목=육상-휠체어 달리기)의 명함 앞면에는 ‘희망을 주는 남자. 새누리교회 인수집사, 간증사역자, 올림픽메달리스트, 작가’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88 서울 장애인올림픽 2관왕, 월드컵 4강 태극전사가 받은 훈장 맹호장 수상, 아시안게임 마지막 성화주자, 창군 이래 최초의 장애인 군번 명예 1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세호 집사님이 간증할 때 옆에 통역사가 통역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두 다리는 서지 못합니다. 한 쪽 팔은 뒤로 뒤틀려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팔은 하나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패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실패의 삶에 희망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습니다.

겨우 움직이는 저에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2개를 따게 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5개나 따게 하셨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50개의 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박찬호 선수나 박세호 선수가 받은 체육훈장을 저도 받았습니다. 각종 대회에 300회나 출전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최초의 장애인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세호 집사님이 간증하는 현장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세호 집사님이, 감사가 부족한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실패의 삶에 희망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주님의 신부

비둘기 같이

오신 성령님 내 안에 모시니

동행하시는 그분의 손길, 나는 느끼네.

내 맘 속에

피어난 구원의 영생 꽃.

해같이 빛나는 천국을 노래하네.

순결한 백합화로

신부단장 시키시어

신랑되신 예수께로 나를 인도 하시네.



김용숙화백

오늘도 속사람은 신부단장을 한다.  
더위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왜?... 나는 주님의 신부이니까...  
계 19:7, 21:2 말씀을 펼쳐본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

-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장 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5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회장 목사 김영준  
총무 목사 오세준

## 사설

##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일당(민주당)만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한다. 입법독주가 제21대 국회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입법독주가 압승의 이유일까? 입법독주 하라고 압승을 시켜준 것이라고 하던데...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라는 책에서 ‘입법권 남용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며 다수 입법 폭주를 경고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법안 제출 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까지 했다. 1년이 지난서야 가결을 하자는 이유는 법안 제출 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듣고 독소 조항이라든가 부작용도 찾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안은 어떻게 입안되어야 할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은 그리스 북부의 스티라카이다. 그곳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묻힌 곳을 ‘아리스토텔레이온’이라고 명명하고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삼았다.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땐 그 곳으로 모였는데 그들은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요체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시민 집단이 토론으로 오류를 걸러내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중 11개를 독식하더니 그렇게 독식한 상임위 중 하나인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 절차를 건너 뛴 것이다.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 됐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일당독재다. 오롯이 민주당만 존재하는 듯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법안까지도 단독 처리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을 보는 것만 같다. 폭주하는 민주당이다. 과거 5년 동안 그렇다가 정권을 5년 만에 잃고 말았는데, 똑같은 암승에 똑같은 입법 폭주에 똑같은 단독 처리를 하고 있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막가파식 입법독주가 도를 넘었다.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를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이화영 전 경지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원내대표가 말을 했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으니 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을 때는 각오하라는 협박인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베주에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현희(권위위에 대한 특검법), 최민희(국회주전 방송 통신위원회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는 법안), 양문석(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입법의 사유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입법의 사유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당이 되고 말았다.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재판 3년 끝기-3년 후 대통령이 되면 끝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전략이 최근 바뀌었다는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로 바뀌었다는 것. 이재명이 차기, 조국이 차차기 순번도 정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 기겁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한동훈이 쏘이어온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이재명 캠프는 기겁하고 당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람들은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돋나고 생각한다. 과연 전략대로 될까? 사법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명수가 망쳐놓은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신진우 판사 등에 의해 고의적 재판 지연에 부정적인 사고를 기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도 9월이면 1심 판결이 날거라고들 말한다. 이러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나온 꼼수가 조기 탄핵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에 포진한 김선수, 노정희 등 좌파 판사들이 9월이면 옷을 벗는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불렀던 증인을 또 부를 수 없다. 그러나 재판 끝기 구실이 줄어드는 것이다. 문제는 운동권의 이런 전략에 가세하는 비 좌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등 62명이 넘어갔다. 그리고 비 좌파 언론들도 넘어가고 군중 다수도 넘어갔다. 양쪽 다 정신차려야 한다. 좌파든 우파든 정신 줄놓고 있으면 한 순간에 나라로 떨어지는 실얼음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아라 그 후에 애네가 밝히 보고...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1,42)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

-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장 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5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총회장 목사 김영준  
총무 목사 오세준